

# 밥 먹고 오고, 시간제한 두고...카페 vs 카공족 '장군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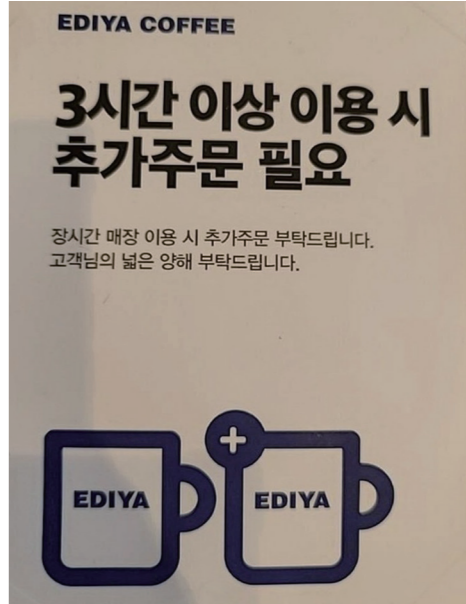
### 자영업 커뮤니티서 '카공족 피해' 공유 대학가 카페 눈치 "괜히 건드리면 고생" 커피 1잔 손님 손익 분기점 1시간42분 "개인 카페 지양...오래 머물면 추가 주문"

카페에 장시간 머물며 공부나 일 처리를 하는 '카공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공족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속 올라오면서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카공족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 경험에 관한 글이 계속됐다. 한 손님이 커피 1잔을 시킨 채 3시간 동안 머물다 카페 맞은편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돌아왔다는 경험담이 대표적이다. 카페 주인이 해당 손님에게 재주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랑이 끝에 한

불을 해줬다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의 대학가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A씨도 개장 이후 카페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A씨는 "카공족은 수가 늘어도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매출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도 "괜히 건드렸다가 대학 커뮤니티 등에 글이 올라가면 나만 고생이기 때문에 지켜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4100원짜리 커피 1잔을 구매한 손님의 손익분기점은 1시간42분으로 집계됐다. 비(非)프랜차이즈 카페 평균 매출 기준 ▲8

개 테이블 ▲테이크아웃 비율 29% ▲하루 12시간 영업 등의 조건을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이처럼 아메리카노 1잔을 구입한 손님이 2시간 이상 머물면 카페 입장에선 손해이지만, 공부나 일을 하는 이들은 그 이상 머무는 경우가 많다. 카페들도 자체적으로 충전 콘센트를 막거나 시간제한을 하며 자구책을 찾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1층과 2층 콘센트를 막아뒀다. 3층 콘센트만 열어 뒀는데 카공족을 1개 층으로 국한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2일에는 프랜차이즈 카페 이디야(EDIYA)의 일부 매장이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라는 안내문을 붙인 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단 이는 본사 지침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량에 따른 정책으로 보인다. 카공족을 향한 다른 손님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않다. 영등포에 사는 주부 서모(41)씨는 "얼마 전에 카페에서 지인들과 이야기

를 나누는데 공부하던 학생이 노려보더라"며 "우리가 시끄러워서인 것 같은데 카페에서 대화를 한다고 그렇게 눈치 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카공족 모두를 민폐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생 이지인(23)씨는 "요즘 프랜차이즈 카페는 카공족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어서 자주 이용한다"며 "개인 카페에서 몇 시간 앉아 있는 건 지양하는 편인데 모든 카공족이 나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 억울하다"고 했다. 카페에서 종종 일한다는 30대 직장인 최모씨도 "보통 2-3시간 머무는데 이 정도는 그냥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조용히 앉아서 불일 보고 나가거나 같은 사람이 카페 주인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카페에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주문을 더 하는 경우도 있다. 프리랜서 김모(29)씨는 "요새 하도 카공



족을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아서 오래 있게 되면 음료를 더 시키거나 샌드위치 같은 음식을 주문하기도 한다"고 했다. 오유나 기자



수북이 쌓인 한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열흘여 앞둔 18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화성한과에서 직원들이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한과를 포장하고 있다.

## '성범죄 선수 부실관리' 광주 북구 검도부 행정사무조사

### 잇단 성범죄 뒤늦게 알고 '사후약방문' 대책, 부실 관리 '파문'

소속 선수들의 잇단 성범죄와 부실 관리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광주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실업 검도부)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는 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열린다. 북구의회는 18일 오전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북구 검도부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이의 없이 원안 가결했다. 북구의회 개원 이래 세 번째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으로, 검도부 대상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북구는 검도부 고참급 선수 A씨의 성범죄를 1년 넘게 몰라 부실 관리 책임이 일었다. A씨의 비위 사실을 모른 북구는 책임용했고, 선고 재판 직전 A씨가 낸 의원면직(사직)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로 퇴직금 1850여만 원까지 지급했다. 이후 북구는 지난달 11일 법원이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에야 인지했다. 퇴직금 지급 절차가 끝난 지 일주일 뒤에야 소속 선수의 중대 비위를 안 것이다. 이를 계기로 펼쳐진 북구 특정 감사 과정에서 또 다른 현직 선수 B씨의 성범죄도 드러났다. B씨는 검도부 입단 직후였던 지난 2021년 성추행을 저질렀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2년 넘게 숨긴 B씨는 감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과 무단 결근(3일)을 일삼다 돌연 사직을 신청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북구는 43만 구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지난 11일 북구 검도부 운영위원회에서는 A·B씨 선수에 대한 해임 징계가 내려지는 등 쇄신 대책을 내놨다. 감독·코치 대상 징계는 잠정 보류된 상태. 그러나 감사에서 드러난 성범죄 선수 훈련 일지 허위 보고, 운영위원회 구성 조례 위반 등은 정확한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혹이 여전히 무성하다. 이날 꾸러진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오는 11월 17일까지 두 달간 검도부 운영 체계 전반을 들여다본다. 선수 성범죄 묵인 또는 은폐, 재임용 평가 부실, 북구청 관리·감독 체계 허점 등 추가 의혹도 규명해 나간다. 특위는 의원 7명으로 꾸러졌다. 위원장에는 최기영 의원, 부위원장은 김건안 의원이 맡는다. 한양민·전미용·김귀성·정상용·손해진 의원이 조사 활동에 참여한다. 특위는 첫 회의를 열고 북구청 검도부 관리·감독 부서 등에 오는 26일까지 관련 자료 총 27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제출 요구 자료에는 ▲검도부 선수단 임용·



광주 북구의회가 18일 '북구 검도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 개시 첫 회의를 열고 있다. 북구의회는 구청 산하 실업팀 검도부 선수들의 잇단 성범죄와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오는 11월 17일까지 61일간 행정사무조사를 벌인다. (사진=광주 북구의회 제공)

퇴직·해임 자료(재임용 심사·운영위 위촉 내역 등) ▲검도부 운영 예산(인건비·훈련비·여비 등) ▲선수단 복무 관련 자료(훈련일지·훈련계획서·징계 및 범죄 경력 조회 내역) 등이 포함됐다. 이후 특위는 증인 출석 요구, 현장 조사, 질의응답 등 조사를 벌이고, 조사 결과를 오는 11월 20일 제290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 최종 보고한다. 최기영 특위위원장은 "검도부는 지난 2018년 허위 전지훈련 등이 드러나 행정사무조사의 당사자였다. 최근에는 선수들의 성범죄가 뒤늦게 드러났고 북구는 이를 몰라 주민의 가까운 혈세로 퇴직금까지 지출했다"고 밝혔다. 서선욱 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